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02호 【루게 제24715호】 주제 103 (2014)년 10월 29일 (수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설한 군인식당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새로 건설한 군인식당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최룡해동지, 박봉주동지, 김기남동지, 김양건동지, 한광상동지, 리재일동지, 박명철동지, 마원춘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환영서동지, 현영철동지, 김정관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 건설에 동원된 군부대의 지휘관들이 맞이하였다.

우리 군인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위대한 사랑에 떠받들리워 군인식당이 새로 일떠섰다.

2011년 10월 군인식당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군인식당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으로 크게 잘 건설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명령을 심장깊이 새기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조선인민군 제489군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은 혁명적군인정신, 결사관철의 정신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1년도 못되는 사이에 방대한 건설공사를 끝내는 자랑찬 위훈을 창조하였다.

연건축면적이 2만 6,120여㎡이고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이루어졌으며 2,500명의 수용능력을 가진 군인식당에서는 국수, 빵 등을 봉사하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 건설한 군인식당을 바라보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감회깊이 회고



성, 문화성을 발휘하는 것과 함께 국수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군인식당에서는 국수의 질을 높고 옥류판을 비롯한 이름난 식당들과 경쟁하여야 한다고, 특히 요리사들의 기술수준을 부단히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 들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식당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게 원자재보장대책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제기되는 문제가 있으면 제때에 보고하라고, 그러면 자신께서 모두 풀어 주시겠다는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의도에 맞게 군인식당을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이, 나무랄데가 없이 훌륭히 건설하였다고 하시면서 군인식당을 선군시대의 자랑스러운 창조물로 보란듯이 일떠세운 군인건설자들의 수고를 치하하시였다.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1948년 2월에 개업한 군인식당은 새 조국건설시기는 물론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영업을 중단없이 진행하였으며 수령님을 모시고 진행된 전승경축 연회를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나라가 어려운 시련을 겪던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원자재보장대책까지 몰소 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속에 군인식당의 문은 항상 열려져있었다고 하시면서 인민군군인들은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을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인식당

이 지난 수십년간 군인들을 위한 급양봉사기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였다고 하시면서 식당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봉사활동을 잘함으로써 군인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대대같은 은덕을 길이 빛내어나가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식사실, 주방을 비롯한 군인식당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과 봉사활동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모든 식사실들을 대중봉사시설답게 넓직하면서도 시원하게 건설했으며 내부장식도 특색있게 했다고, 마감재의 색깔이 은은하고 좋다고 하시면서 국가연회장으로

리용해도 손색없을것 같다고 말씀하시였다.

식탁과 의자 등 가구비품들의 질도 좋고 수용능력에 맞게 주방을 잘 꾸렸으며 국수그릇을 비롯한 집기류들도 그흔히 장만해놓았다고, 특히 위생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할수 있게 현대적인 소독 및 세척설비들도 갖추어놓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인식당의 관리운영과 봉사활동을 잘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인식당을 우리 군인들이 즐겨 찾는 대중식당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군인들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니고 친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날 동행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과 함께 군인식당 종업원들이 준비한 국수의 맛을 친히 보아주시면서 민족음식인 국수의 고유한 맛과 전통을 잘 살리고 여러가지 음식물의 질을 더 높임으로써 군인들의 사랑을 받는 봉사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간다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군인식당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군인들에 대한 친어머니 사랑을 안으시고 찾아오시여 한없는 믿음과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맡겨진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 불타는 결의를 다짐하였다.

본사정지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평양시민들과 함께 새로 개건된 5월 1일 경기장에서 여자축구경기를 관람하시였다

우리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이 자랑찬 현실로 펼쳐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5월 1일경기장이 훌륭히 개건되였다.

조선로동당 제 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 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10월 28일 평양시민들과 함께 새로 개건된 5월 1일경기장에서 국가종합팀과 월미도팀사이의 여자축구경기를 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축구경기를 보게 된 환희와 걱정으로 장내는 세차게 설레이었다.

경기에 앞서 제 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주체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걸고 경기마다에서 련전련승을 이룩함으로써 온 나라의 경사를 안아 온 우리 조국의 미더운 딸들을 태운 무개차가 경기장에 들어서자 관람석에서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국가종합팀 여자축구선수들의 얼굴마다에는 선군조선의 체육인으로서 응당 해야 할 일을 한 자기들을 영광과 행복의 최절정에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이 뜨겁게 어려있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였다.

관람자들은 나라의 체육발전과 인민



들의 문명한 생활을 위해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폭풍같은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평양시민들에게 손저어 주시였다.

최룡해동지, 황병서동지, 최태복동지, 현영철동지, 박도춘동지, 강석주동지, 김양건동지, 김평해동지, 박범기동지, 오수용동지, 로두철동지, 조연준동지, 김수길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들이 경기를 보았다.

경기는 월미도팀의 먼저차기로 시작되였다.

량팀 선수들은 시작부터 경기속도를 높이면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적극

적이고 대담한 공격을 시도하였다.

당의 주체적인 훈련방침을 받들고 평시에 련마한 우리 식의 경기전법과 집단주의정신, 고상한 경기도덕품성, 완강한 투지를 보여주는 량팀 선수들을 관람자들은 열렬히 응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국가종합팀 여자축구선수들이 지칠줄 모르는 열정으로 경기장을 종횡무진하면서 다양한 축구기술을 남김없이 과시하며 련속 통쾌한 득점장면을 펼쳐보일 때마다 박수를 보내시였다.

경기에서는 아시아의 최강팀으로서의 실력을 보여준 국가종합팀이 월미도팀을 9:0이라는 압도적인 점수차이로 이겼다.

경기가 끝나자 또다시 관람자들이 터치는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경기장을 진감하며 수도의

하늘가에 끝없이 메아리쳐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선수들과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경기가 끝난 다음 제 17차 아시아경기대회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선수, 감독들을 만나주시는 자리에 참가하지 못하였던 탁구선수 김정동무를 몸가까이 부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삼가 고마움의 인사를 올리는 김정선수와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5월 1일 경기장이 당장건기념일을 계기로 우리나라 체육시설의 상징, 문명국의 체모에 맞는 경기장으로 개건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5월 1일경기

장은 위대한 장군님의 웅대한 구상과 통이 큰 결단에 의하여 일떠선 세계적인 경기장이며 선군조선의 자랑이고 체부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군민대단결의 위력으로 15만석의 수용능력을 가진 5월 1일 경기장개건공사를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끝낼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체육강국을 지향하는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경기장을 훌륭히 전변시키는 데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군인들과 건설자들, 지원자들에게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감사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속에서 체육에 대한 관심이 비상히 높아지고 특히 제 17차 아시아경기대회를 통하여 체육열풍이 더욱 세차게 일어나고있다고 하시면서 5월 1일경기장을 나라의 체육을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적극 이바지하는 중요한 거점으로 되게 하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전체 선수들과 관람자들은 선군혁명령도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새로 개건된 5월 1일경기장에 몸소 나오시여 국가종합팀과 월미도팀사이의 여자축구경기를 보아주시고 우리 체육인들과 인민들에게 필승의 신심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체육강국건설에 모든것을 바쳐갈 불타는 열의에 충만되어있었다.

본시정치보도반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개건된 5월1일경기장 준공식 진행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건설의 대변영기가 펼쳐지는 속에 5월1일경기장이 우리 나라 체육시설의 상징으로, 문명국의 체모에 맞는 경기장으로 훌륭히 개건되었다.

풍치아름다운 통라도의 자연경치와 조화를 이루며 웅장화려하게 개건된 5월1일경기장은 로동당시대를 빛내이는 또 하나의 자랑찬 창조물이며 우리 체육인들과 인민들을 위한 종합적이고 현대적인 대중체육봉사기지이다.

경기장에는 15만석의 관람석을 가진 축구장과 복상주로, 예비운동실, 선수침실, 감독실, 심판원실, 검사등록실 등이 국제적기준에 부합되게 꾸려졌으며 수영장, 탁구장, 미니어폴프장, 피로회복실을 비롯한 체육 및 문화후생시설들과 봉사망들이 최상의 수준에서 그쁘히 갖추어져 선수들의 훈련과 경기는 물론 관람자들의 편의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체육강국건설구상에 따라 훌륭히 개건된 5월1일경기장 준공식이 28일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준공식장에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준공식장에는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위대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상에 빛내이자!》, 《우리 나라를 체육강국으로 만들자!》라고 쓴 구호들이 나붙어있었으며 국기개양대에는 공화국기가 나붙고있었다.

준공식에는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들과 관계부문 일군들,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와 세계선수권대회 등에서 우승한 선수, 감독들, 5월1일경기장 개건공사에 참가한 군인들과 건설자들, 체육부문 일군들, 체육인들,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최룡해동지가 준공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위대한 당의 령도아래 선군조선의 기상과 위력을 온 세상에 과시하는 자랑찬 체육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체육강국건설구상에 따라 훌륭히 개건된 5월1일경기장 준공식을 성대히 진행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당의 령도밑에 우리 조국땅에는 건설의 최전성기가 열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강성국가건설구상이 희한한 현실로 펼쳐지고있습니다.》

연설자는 주체의 건축술을 과시하며 개건된 5월1일경기장은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세계적규모의 체육시설이며 로동당시대와 더불어 길이 빛날 선군조선의 귀중한 재부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난해 9월 몸소 5월1일경기장을 찾으시어 체육강국을 지향하는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경기장을 완전히 일신시킬것을 발기하시고 강력한 건설지휘부와 설계집단, 건설력량을 편성해주시였으며 자재, 설비보장대책까지 세워주시는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지난 6월 공사현장을 또다시 찾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체적이면서도 세계적인 식견과 안목을 가지고 공사를 창조적으로, 혁신적으로 밀고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관람석의자의

색깔을 비롯하여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세부적인 요소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5월1일경기장은 우리 당의 건축미학사상과 인민관이 철저히 구현된 선군시대의 기념비적건축물로 그 면모를 완전히 일신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연설자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전투명령을 피우는 심장으로서 받아안은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은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으로 팀체전, 심혈전을 들여내어 공사에서 놀라운 기적과 성과를 이룩하였다.

불가능을 모르는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몇개의 대상건설과 맞먹는 방대한 5월1일경기장개건보수공사는 10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될수 있었다.

내각과 성, 중앙기관들, 편관단위들에서는 필요한 자재와 설비들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였으며 평양시민들과 5월1일경기장의 종업원들, 각지 공장, 기업소의 일군들과 야간지원청년동력대원들도 뜨거운 애국의

마음을 안고 개건보수전투를 물심량면으로 적극 지원하였다.

참으로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훌륭히 개건된 5월1일경기장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와 김정일애국주의를 체화하고 실천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애국충정이 낳은 위대한 창조물이다.

연설자는 온 나라 천만군민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우리 인민들에게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며 사회주의부귀영화의 새 역사를 펼쳐나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오늘 우리앞에는 당의 령도따라 이 땅우에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하루빨리 일떠세워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우리는 당의 주체적인 건축미학사상과 숭고한 인민관을 심장으로 체득하고 5월1일경기장개건보수공사에서 발휘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만년대계의 창조물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일떠세워야 한다.

전체 체육인들은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선군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상에 펼친 선수들처럼 훈련에서 더 많은 땀을 흘려 금메달로 우리 당을 결사옹위하고 체육강국에로 비약해나가는 우리 조국의 기상을 더욱 힘있게 과시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려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시설물들을 정히 다루고 리용함으로써 인민들에게 최상의 체육봉사기지를 마련해준 당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깊이 빛내여나가야 한다.

연설자는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필승의 신심과 락판에 넘쳐 인민의 꿈과 이상이 활짝 꽃피날 강성번영의 태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준공식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웅대한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주체체육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감에 부강번영할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향하여 힘찬 진군을 다그치시길 참가자들의 드높은 혁명적열의가 차넘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조선중앙통신】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개건된 5월1일경기장 준공식 진행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의 과학성과 진리성, 불패의 생활력을 깊이 연구체득하기 위한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의 과학성과 진리성, 불패의 생활력을 깊이 연구체득하기 위한 중앙연구토론회가 28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다.

토론회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와 김용진내각부총리, 중앙과 평양시의 당, 행정, 근로단체일꾼들, 과학, 교육, 문학예술, 출판보도, 당일군양성기관, 혁명사적부문 일꾼들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의 과학이디》에서 밝혀신 과학적이며 독창적인 사상리론의 정당성과 그 불패의 생활력을 깊이 있게 해설론정한 5건의 문명이 발표되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의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대중의 리념이더 혁명적기시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력사적로작 《사회주의의 과학이디》는 사회주의의 위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불멸의 총서》라는 제목으로 로동신문사 부장 강진형이 토론했었다.

그는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지금으로부터 20년전 11월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의 과학이디》를 발표하신것은 사회주의건설사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신 력사적사건이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은 계급주의자들의 온갖 반사회주의계변을 여지없이 박산내고 인류의 앞길에 주체

의 사회주의가 영원한 진리로, 백승의 과학으로 빛을 뿌리게 한 강위력한 보금이다.

인류의 자주위업수행의 위대한 등대로, 사회주의승리의 대백과전서로 공인받고있는 위대한 장군님의 력사적로작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인류와 우리 인민의 앞길에 사회주의에 대한 필승의 신념을 안겨주는 불멸의 전투적기시지라는데 그 세계사적의의가 있다.

로작은 또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필승불패성을 힘있게 선언한 주체의 사회주의리론의 총서이다.

로작에 담겨진 인민대중에 대한 주체적관점과 립장,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본질적우월성에 대한 정식화는 과학으로서의 주체의 사회주의의 위업을 전면적으로 실현완성시키는데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의 원리적기초를 밝히고있다.

사회주의의 과학성과 진리성을 시대와 력사앞에 힘있게 선언하고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식 사회주의의 필승불패성을 확고히 담보한 위대한 장군님의 력사적로작은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와 더불어 영원할 승리의 기치로 된다.

김일성종합대학 강좌장 박사 부교수 박명남은 《주체의 사회주의리론은 사회주의를 새로운 과학적기초에서 발전완성시킨 위대한 혁명학설》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토론했었다.

주체의 사회주의리론은 무엇보다도 사람,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사회주의의 본질과 우월성, 그 발전의 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해명함으로써 사회주의위업의 정당성과 력사적필연성을 뚜렷히 확증하였다.

사회를 단순히 하나의 경제적구성에 대해서 보고 물질중심의 관점에서 그 면모와 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힌 신형학설의 미숙성과 그에 대한 교조적 충지부를 찍고 그것을 사람,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과학적으로 해명하였다.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를 자기의 생명으로, 생활로 간주하고있는것은 인민의 존엄과 권리를 최상의 경지에 서 빛내어주고 참된 삶과 행복을 안겨주는 하느같은 세상이 절세위인들의 인민대중중립주의사상이 철저히 구현된 주체의 사회주의라는것을 실생활을 통하여 심장으로 걸감하고있기 때문이다.

주체의 사회주의리론은 다음으로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사회주의건설의 근본방도를 과학적으로 해명함으로써 사회주의위업수행의 가장 올바른 길을 밝혀주었다.

주체의 사회주의리론이 밝힌 사회주의건설의 근본방도는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 것이다.

다시말하여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절명하기 위한 투쟁을 다같이 벌리면서도 사상적요새를 절명하기 위한 인간적조사업, 사상적조사업을 확고히 앞세워 당과 혁명대오

의 사상적일쇄화, 조직적단결을 실현하며 군대와 인민의 사상의 위력, 단결의 위력을 높이 떨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 혁명의 실천적경험은 주체의 사회주의리론이야말로 과학으로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적진전과 완성을 확고히 담보하는 만능처방이며 사회주의를 새로운 과학적기초 위에서 발전시킨 가장 완성된 위대한 혁명학설이라는것을 힘있게 확증하고있다.

사회과학원 소장 박사 서성일은 《우리의 사회주의는 사람, 인민대중에 대한 주체적관점과 립장에 기초하고있는 불패의 사회주의》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다음과 같이 논증하였다.

우리의 사회주의는 사람에 대한 주체적관점과 립장에 기초하고있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이다.

주체사상은 사람의 세계의 유일한 사회적존재라는것을 밝히고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본질적특성이라는것을 독창적으로 해명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사람에게 가장 귀중한 생명은 육체적생명이 아니라 사회정치적생명이라는것과 사람의 값높은 삶은 사회적집단을 위해 헌신하면서 집단의 사랑과 믿음속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는데 있다는 데 대하여 밝혀주었다.

사람에 대한 주체적관점과 립장은 우리의 사회주의를 사람위주의 독특한하고 우월한 사회주의로 빛을 뿌리

게 한 사상리론적기초이다.

다음으로 우리의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에 대한 주체적관점과 립장에 기초하고있는 가장 우월하고 위력한 사회주의이다.

인민대중은 사회의 모든것의 주인인것만큼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하면서 값높은 생활을 누려야 한다는데 인민대중에 대한 주체적관점과 립장의 본질적내용이 있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에서는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이 인민대중자신의것으로 되었을뿐아니라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집대성하여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그들에게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고있다.

이처럼 우리 식 사회주의는 사람, 인민대중에 대한 주체적관점과 립장에 기초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가장 우월하고 위력한 사회주의로 되고있으며 우리 조국은 오늘도 빼어난 영인민인 나라, 주체의 사회주의로만방에 빛을 뿌릴것이다.

《우리 식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은 위력한 사회주의》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조선로동당출판사 부장 김철만은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무엇보다도 인민대중의 자주적지위와 권리를 철저히 지켜주며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키워주고 이끌어주는 참다운 사회주의이다.

우리 식 사회주의는 사회주의건설의 전력사적행정에서 언제나 인민을 첫자리에 놓고 그들의 요구와 염원을 당과 국가의 로선과 정책들에 때때 정확히 반영하고 관철해오도록 하여 주인의 인민대중의 자주적지위가 철저히 지켜지고 권리가 원만히 행사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우리 식 사회주의는 인민들에게 온갖 사회적혜택을 아낌없이 돌려주어 이 세상 그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값높고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는 참다운 사회주의이다.

인민의 복리증진을 당과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운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회주의건설의 전기간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하느처럼 여기시며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모든것을 장그려 바치시었다.

오늘 우리 당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만시편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만들어온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 확고한 결심에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새 력사를 펼쳐가고 있다.

김일성고급당학교 강좌장 부교수 서경남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가는것은 우리 식 사회주의를 세계만방에 떨치기 위한 확고한 담보》라는 제목으로 토론했었다.

그는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의 불패성의 원천

이며 최강의 무기인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을 유일중심으로 하는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다지며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쳐나가야 할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위대한 김정원수님을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실현의 구호, 행동의 구호로 추켜들고 전당과 온 사회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명도만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혁명적구호와 질서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과 의도를 절대적인 진리로, 지상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모든 힘과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에서 생산적양양을 일으키며 군현활동전선의 위력을 더욱 높이 발휘함으로써 우리 조국선속도창조의 열풍이 세계 휘몰아치게 하여야 한다.

모두가 김정일에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투철한 신념과 견결한 계급의식,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닌 참다운 혁명가, 열렬한 애국자가 되며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행위에서 기적과 위훈의 창조자가 되어야 한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의 과학이디》를 영원한 승리의 표대로 틀어쥐고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명도따라 이 땅위에 부강번영하는 백두산대국을 기어올리며 새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나갈 혁명적열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공화국 국회 상원 의장과 하원 의장을 만났다

【브라자빌 10월 27일 본사특파원발 조선중앙통신】공화국국회를 공식친선방문하고있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청사에서 앙드레 오바미 이투 국회의장 의장과 주스뎀 콰마 국회의원 의장을 각각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석상에서 상원의장은 지난 시기 공고의 독립을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는 공고인민의 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조선인민의 강대한 의지에 대하여 감탄하고있다고 하였다.

하원에서는 주스뎀 콰마 의장이 두 나라 국회의사회의 관계를 발전시켜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하원의장은 이번 방문이 두 나라사이의 관계발전에 기여하게 되리라고 확신하면서 조선인민의 애국투쟁에 대한 공고인민의 지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하였다.

담화들에는 강하국보건상, 궁석옹 외무성 부장, 서길복 대외경제성 부장, 최철수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립사대리대사, 기타 수행원들과 필레르 푸리 송구 국회의상원 제1서기, 가브리엘

오바르 국회의상원 외교 및 협조분과위원회 위원장, 에메카 발레르 국회의원 제1서기, 끼고 송비 조제프 제2서기, 관계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이날 김영남위원장을 환영하여 주스뎀 콰마 국회의원 의장은 연회를 마련하였다.

오바르 국회의상원 외교 및 협조분과위원회 위원장, 에메카 발레르 국회의원 제1서기, 끼고 송비 조제프 제2서기, 관계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이날 김영남위원장을 환영하여 주스뎀 콰마 국회의원 의장은 연회를 마련하였다.

오바르 국회의상원 외교 및 협조분과위원회 위원장, 에메카 발레르 국회의원 제1서기, 끼고 송비 조제프 제2서기, 관계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이날 김영남위원장을 환영하여 주스뎀 콰마 국회의원 의장은 연회를 마련하였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수단공화국 대통령에게 감사전문을 보내었다

【하르툼 수 단 공 화 국 대 통 령 오마르 하싼 아흐마드 알 바쉬르각하 나는 친선적인 수단공화국에 대한 공식친선방문을 마치고 아름다운 하르툼을 떠나면서 우리를 열렬히 환영하고 극진히 환대하여준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이번 방문기간 쌍무관계를 계속 활력있게 강화발전시켜나갈데 대하여서와 기타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유익한 의견들을 나누고 일련의 합의를 이룩하였습니다.

나는 당신과 귀국정부의 깊은 관심속에 진행된 우리의 귀국방문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어 우리 두 나라사이의 쌍무관계발전을 가일층 추동하는 중요한 계기로 된 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친선적인 수단정부와 인민이 각자의 훌륭한 명도밑에 나라의 평등완정과 안전보장,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성과를 거둘것과 아울러 당신이 건강하여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제103(2014)년 10월 26일

【하르툼 수 단 공 화 국 대 통 령 오마르 하싼 아흐마드 알 바쉬르각하 나는 친선적인 수단공화국에 대한 공식친선방문을 마치고 아름다운 하르툼을 떠나면서 우리를 열렬히 환영하고 극진히 환대하여준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이번 방문기간 쌍무관계를 계속 활력있게 강화발전시켜나갈데 대하여서와 기타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유익한 의견들을 나누고 일련의 합의를 이룩하였습니다.

나는 당신과 귀국정부의 깊은 관심속에 진행된 우리의 귀국방문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어 우리 두 나라사이의 쌍무관계발전을 가일층 추동하는 중요한 계기로 된 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친선적인 수단정부와 인민이 각자의 훌륭한 명도밑에 나라의 평등완정과 안전보장,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성과를 거둘것과 아울러 당신이 건강하여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제103(2014)년 10월 26일

눈감고 아용하는 식의 광대극은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최근 미국이 이미전부터 고고도미사일방위체계를 남조선에 끌어들이려 짜야 할 계획을 짜고 있다는 것이 폭로되어 세계를 놀래우고 있다.

이 사실을 얼마전 남조선신문 《국민일보》가 보도하였다. 그에 의하면 미국이 3년전부터 일명 《싸드》로 불리는 고고도미사일방위체계를 남조선주변에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피뢰파들의 합동군사연습기간 《싸드》배비를 가정한 훈련까지 진행하였다. 2011년 8월 《울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에 참가했던 미군인 고고도미사일방위체계를 남조선주변에 배치할 계획을 짜고 있다는 사실을 《이민에 처음》으로 《싸드》배비를 가정한 훈련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토론했다. 이것은 미국이 오래전부터 남조선당국과 공모협력하여 《싸드》의 남조선배비를 기정사실화하고 그 준비를 면밀히 진행하여왔다는 것을 폭로하 증명해준다.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남조선에 《싸드》를 배비하는 문제를 놓고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서로 엇갈린 소리를 계속 내며 대립해 오고 있다. 미국은 남조선당국에 미군사령관, 국방장관, 미사일방위구장 등 고위직관들을 내세워 《싸드》의 남조선배비를 검토하고 있다고 공개하는 반면에 남조선피뢰파들은 미사일방위체제가 아니라 나와도 볼 수 없는 황소처럼 멧돼지 같은 한낱 고고도의 한 조각도 아니고 시치미를 떼다. 미국 이번 공개자료를 통하여 상진과 주주의 편이한 주장이 하나의 기만극에 불과하며 남조선피뢰파들이 같은 《싸드》를 도입할 생각이 없다는 사실은

니 하고 아닌보살하였지만 실지로는 그 추진을 적극 획책하여온 특등전정 하수인이라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더욱 역겨운것은 고고도미사일방위체계를 남조선에 끌어들이는 문제를 놓고 서로 동에 닿지 않는 소리를 계속 내던 미국과 남조선전정세력이 그 용도에 대해서는 《북의 도발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것처럼 입을 모아 여론을 오도하고있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이처럼 눈독을 들이고 배비하려는 고고도미사일방위체계가 진짜 우리의 《미사일위협》에문인가, 그들이 늘 남북처럼 위태는 우리의 《미사일위협》타령인지 만 그에 대해 사한번 까발려볼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의 미사일이 미국과 그에 아무추중하는 피뢰파들을 파념으로 하고 있는것에 대하여 구려어 술집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는 우리때문에 벌어졌는지 아니냐. 우리가 거듭 천명한다와 같이 우리의 전략적 슬로트전략들은 남로 가중되는 미국의 핵전쟁위협에 맞서기 위한 철저한 자위적 위장수단이다. 미국에 의해 새로운 조선전쟁이 가시이 아니라 현실로, 레일이 아니라 오늘로 박두해오고있는 형편에서 우리가 팔짱을 끼고 가만히 앉아서 있을수 없다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진짜 미사일위협가해자는 미국이 아니라 남조선에 속한 핵미사일을 전개하고 복원전쟁영등들을 광판적으로

로 벌리면서 조선반도정세를 전쟁경계로 치닫게 하였다. 태평양상에 있는 판도군사기지에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고고도미사일방위체계를 배비하고 운영하고있는것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미사일위협이 어디서 어디로 가해지고있는가 하는것은 더 논할 여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위적인 전쟁억제력에 대해 《위협》이니 뭐니 하는것은 적반하장인 아닐수 없다. 미국과 피뢰파들이 우리의 《미사일위협》을 비례하게 걸고드는 목적은 《싸드》와 같은것을 끌어들이려 저들의 미사일방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핵전쟁준비를 최종적으로 완성하자는데 있다.

미국이 《싸드》의 목표로 삼는것은 우리 공화국만이 아니다. 현실이 조선반도주변에서 광판적으로 벌여지고있는 미국의 군사적목적임은 그 어느것이나 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전략과 때때로 동떨어져 있다. 오라미 행정부가 몇년전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라는 이름으로 핵정환이 진척을 본질에서 이 지역에 힘을 집중하여 경쟁자들을 포위억제하고 저들의 정지군사적위위를 계속 부지해보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미사일방위체계의 핵심으로 남조선에 배비하려는 《싸드》의 배경은 다름아닌 조선반도주변미국들인 로씨야와 중국을 군사적으로 제압하며 나아가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권을 확립하려는 데 있다.

그것은 《싸드》의 기술적특성만 놓고

보아도 심분 짐작할수 있다. 미국이 추진하는 미사일방위체계의 핵심장비인 《싸드》는 대륙간탄도미사일과 같이 높은 고도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이다. 특히 《싸드》가 필수적으로 동반하게 되어있는 《X-100》메이더의 탐지거리는 1000km에 달한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북반부는 물론 중국과 로씨야의 군사정보를 실시간 감시하고 세계적인 미사일감시망을 구축하는데 유리하다. 고고도미사일방위체계가 남조선에 배비될 경우 미국이 주변국들을 제압할수 있다는것이 군사전문가들의 한결같은 평이다. 중국과 로씨야도 이에 대해 모르지 않는다. 중국의 한 연구사는 비록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조선의 《위협》을 줄곧 《싸드》 배비의 구실로 삼고있지만 중국을 겨냥한 의도는 매우 뚜렷하다고 명백히 말하였다.

로씨야전략로케트군 이진 참모총장 역시 《미국은 교활하게도 저들의 미사일방위체계가 조선의 미사일위협에 대처하기 위한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이것은 거짓이다. 미국은 로씨야와 중국의 핵잠재력을 억제하기 위하여 지역미사일방위체계를 구축하고있다.》라고 하였다.

미국이나 남조선당국이 《싸드》배비는 로씨야나 중국을 겨냥한것이 아니라 고고도미사일방위체제 도입의 위험성은 여기에 있다.

미국은 강도적론리는 절대로 통할수 없다.

의 《미사일위협》이니 뭐니 하는 케케묵은 소리를 계속 늘어놓아오는것은 저들의 《싸드》배비를 반대하는 주변나라들의 반발을 누락하고 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교활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지금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X-100》메이더대신 탐지거리가 짧은 케이더로 대신할수 있다느니 뭐니 하고 주변국들의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를 막아보려 하고있지만 그것은 한갓 기만에 불과하다.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주변국들의 반발과 경계심을 더욱 조장시킬수 있다.

중국을 비롯한 주변나라들은 《싸드》를 남조선에 배비할 경우 《쌍무관계를 회색시계 필것》이며 《상상력의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결코 믿말이라고 불수 없다.

핵전쟁공격을 느낀 미국의 미사일방위체제구축책동을 강 건너 불보듯 수수방관할 나라는 없을것이다.

고고도미사일방위체제 《싸드》가 남조선에 배비되는것은 시간문제이다. 그렇게 되면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은 물론 동북아시아지역의 핵전쟁위협도 절정에 달할것이다. 그것이 동북아시아 나아가서 세계정세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불씨로 된다는것은 불로 의심할수 없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위체제 도입의 위험성은 여기에 있다.

미국은 강도적론리는 절대로 통할수 없다.

인도네시아 통신이 보도

인도네시아의 머르데카통신이 20일 《조선통일의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연방제》라는 제목으로 인도네시아 수카르노 교육재단창립위원회 위원장 라흐마와데 수카르노노브리와 조선평화위원회지사이자 태평양지역위원회 공동위원장 피터 우즈와의 대화를 전했다.

통신은 라흐마와데 수카르노노브리와 피터 우즈가 북남사이에서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 호상 자기의 체제를 주장하고있는 조건에서 조선반도의 통일실현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연방제방식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피터 우즈는 국제사회에 조선의 연방제방향을 적극적으로 소개할 것을 촉구하였다. 라흐마와데 수카르노노브리는 남조선에서의 미군의 철수를 촉구하였다. 그는 남조선주둔 미군은 조선반도의 긴장을 상생시키는 기본요인이라고 하면서 미군 철수가 없는 북남사이의 건설적 평화회담을 기대할수 없다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 북남사이의 평화협약과 같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밑에서 북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자 지역자치회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창립하기 위하여 조선통일문제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북남최고수뇌분들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조선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갈데 대하여 합의하였다.

6.15북남공동선언에서 북남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과 남측의 연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나가기로 하였다.

조선통일문제는 반드시 조선인민자체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세계가 조선의 통일을 지지하고있다.

피터 우즈는 국제사회에 조선의 연방제방향을 적극적으로 소개할 것을 촉구하였다. 라흐마와데 수카르노노브리는 남조선에서의 미군의 철수를 촉구하였다. 그는 남조선주둔 미군은 조선반도의 긴장을 상생시키는 기본요인이라고 하면서 미군 철수가 없는 북남사이의 건설적 평화회담을 기대할수 없다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 북남사이의 평화협약과 같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밑에서 북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자 지역자치회를

【조선중앙통신】

북남관계개선을 바라지 않는 이중적자세

북남관계가 엄중한 기로에 놓여있는것과 관련하여 남조선에서 그 책임을 회피하며 우리를 걸고드는 당국자들의 뻔뻔스러운 처사가 계속되고있다. 그들은 《이중적인 태도》를 취한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 《싸드》하는 말만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의 성의를 깎아내리고 보수인원들도 《도발과 유화책의 병행》이니, 《이중적모습》이니 하는 악담으로 지면을 어지럽히고있다.

남조선당국이 《이중성》이니 뭐니 하며 우리를 힐끔보는것은 완전한 현실기만이고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에게 대한 참을수 없는 모욕이다.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려는것은 우리의 시종일관한 립장이자, 우리 총정치국장인민회의의 인민방면은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우리의 진정성을 충분히 보여준 훌륭한 계기였다. 북남관계가 어수선한 속에서도 우리는 높은 금의 대표단을 파견하여 화해와 단합의 넓은 길을 열기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란 그가 누구이든 함께 손을 잡고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우리의 진심에 대해 남조선당국자들도 거듭 사의를 표명하며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확약하였다. 그후 우리는 즉시 비방중상도 일체 중지하고 군사적충돌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도 보여주었다. 여기에 무슨 흑심이 있고 이중적인 태도가 있는가.

우리의 노력은 그 어떤 총독정권에도 아니고 일시적인 유희책도 아니다. 우리는 이미전부터 민족을 중시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란 그가 누구이든 과거를 불문하고 함께 나아가갈 립장을 명백히 표명하였으며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북남관계개선의 열거를 열어나가기 위하여 할수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왔다. 우리 총정치국장인민회의의 인민방면은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꾸준하고 진지한 노력의 연속이다.

나라가 분열된 첫날부터 우리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기 위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여왔다. 민족분열의 첫 시기에 북조선의 제정당, 사회단체대표자들이 당파와 주의주장의 차이를 초월하여 편식회의를 가질수 있었던것은 전민족의 대대결로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의 적극적인 의지의 결실이었다. 격결상태에 있던 북남사이에서 대화와 협상의 문이 열리고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을 천명한 7.4 공동성명이 채택될수 있었던것, 새 천년의 려망기에 민족에게 통일의 희망과 락관을 던져준 지구통일의 새시대가 탄생한것도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의 진지하고도 파급한 실천의 열매이다.

북남관계에서 이중성을 보여준것은 다름아닌 남조선당국이다.

남조선당국이야말로 말과 행동이 다르고 결과 속이 편이한 신의없는 상대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인민에서 우리와 만날 당시 북남관계를 개선하는데 앞장섰다고 귀머지같은 말을 많이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앉아마자 언제 그랬던가싶게 반공화국도발에 더욱 기승을 부리었다. 추악한 인간스펙테기들을 반공화국배설로써 내몰면서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심히 흐려놓았다. 서해열점수역에서 우리 함정에 수십발의 총포사격을 가한데 이어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정상적인 순찰근무를 수행하던 우리 군인들을 겨냥하여 마구 총질을 해대는 엄중한 도발도 감행하였다. 남조선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도발책동들이 번질나갈 것 같았을때 최근시기처럼 집중적으로 벌어진 때는 찾아보기 어렵다.

남조선당국이 우리와 약속한다 북남관

관계개선에 진실로 나서려 한다면 대화상대를 자국하고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적대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말로는 대화와 관계개선을 하고자 하면서 상대방의 존엄과 체면을 심히 헐뜯으며 총포사격까지 가하는 이것을 어떻게 이중적자세라고 말할지 알수 없겠는가.

남조선당국은 《도발》이니, 《이중성》이니 하고 남을 걸고들기 전에 반공화국모략책동을 방비하고 배후에서 적극 뒷받침한것들의 죄행부터 돌이켜보아야 할것이다. 말로는 대화와 관계개선을 떠들면서 도 버라살로, 총포소동에 미쳐달라는 피뢰파들의 망동이야말로 위선과 이중성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일으킨 큰 귀머지같은 소리를 듣고 속으로 칼을 품고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마주앉아야 무슨 온전한 대화도 진행되고 관계개선이 이루어지겠는가. 오히려 어떻게 마련한 대화마저 대결의 장소로 전락되고 겨레에게 큰 사망만 가져다줄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련대 남조선당국이 이처럼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칼을 가는 이중적인 태도로 민족을 우롱하였기에 북남관계는 대화와 대결의 악순환속에 흘러갔다.

남조선당국은 동족을 신의로 대하며 진실로 대결정세를 가시려는 립장에 서야 한다. 이것을 외면한채 민족의 운명이 걸린 귀중한 북남관계를 놓고 위험천만한 도박을 놀며 대결정적실현의 기회만을 엿보는 피뢰파들의 악랄한 책동을 우리는 절대로 용납치 않을것이다.

이제라도 대결의 악습을 버리고 북남관계의 역사를 새로 쓰겠다는 아니면 앞뒤가 다 배신적인 망동을 계속 일삼으면서 민족반역에도 나아가겠는가. 이에 대해 남조선당국은 립장을 명백히 해야 할것이다.

○ 로씨야정부가 에블라비루스감염증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수상 드미트리 메드베제프의 참가에서 서아프리카지역을 휩쓸고있는 에블라비루스가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이 때문에 관련 회의가 진행되었다. 회의에서는 비행장들에 검역실비들을 증설하고 국경에서 위생검역사업을 강화하며 전문의료인들을 양성하고 예방약물을 개발하는 등의 문제들이 토의되었다.

○ 최근 인도인 정부는 뉴델리에서 고위급회의를 열고 에블라비루스감염증의 전파와 그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을 보다 강화할데 대한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이에 따라 비행장과 항구들에 서 여행객들에 대한 엄격한 위생검역사업이 진행되게 된다.

한편 바베이도스 건설도 나라의 모든 항구들에서 입국자들에게 대한 검역사업을 강화하며 서아프리카 지역 령행자들에게 대한 사증발급을 중지할것이라고

전 세계의 령사들 빛내이기 위하여

로씨야인민에게 있어서 다음해는 파초도이칠란드의 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조선을 지키고 전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한 위대한 조국전쟁승리 70돐이 되는 해이다.

엄중한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무비의 희생정신과 불굴의 영웅심을 간직한 조선인민의 영웅적투쟁과 결연한 희생이 있었기에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수호될수 있었다.

오늘도 이 나라 인민들은 조국호호자처럼 밝힌 영웅적위훈과 불굴의 투쟁정신을 긍지롭게 추억하고있다.

최근 로씨야가 위대한 조국전쟁승리의 령사와 진로를 빛내이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전쟁로병들이 발휘한 용감성과 영웅주의를 기념하고 계승해나가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얼마전 로씨야의 무상은 한 위대한 조국전쟁참가자의 운명에 대한 새 기록영화상에 앞서 모두가 전승 70돐준비를 들끓고있는 시기에 진행되는 사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전쟁로병들을 영웅히 추억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할것을 호소하였다.

이미 독립국가협동체 국가수반자사회 회의에서 《2015년을 독립국가협동체 나라들에서

1945년 1945년 위대한 조국전쟁로병들의 해로 선포할데 대한 결정이 채택된데 따라 로씨야에서는 2015년을 파시스트들과의 싸움에서 전세계가 이룩한 공적을 영원히 추억하고 빛내이는데 이바지하는 령사적인 해로 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전쟁로병들의 위대한 위훈과 영웅주의, 자기희생정신을 높이 파라배우도록 목적민에 《1941-1945년 위대한 조국전쟁승리 70돐》 기념메달을 제정할데 관한 정령이 발표되었다.

로씨야에서는 나치즘의 영웅화, 회화 위대한 조국전쟁승리의 령사적의의를 부각하려는 현상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고있다.

지금 일부 나라들에서는 신나치스트들이 제세상처럼 활개치면서 제 2차 세계대전에서 용감하게 싸운 영웅들의 위훈을 말살하고 영웅들을 로블화하고있다. 얼마전 라트비아의 수도 리가에서 이진 《에스에스》 성원들의 그 무슨 《년례행진》이 진행되어 에스에스야에서는 이진 《외젠-에스에스》 제 20사단의 로병대 회라는것이 진행되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를 비롯한 기타 도시들에서는 히틀러와 기타 나치스트피뢰파들의 발언들이 가득 인용된 《에스에스》 제 2차 세계대전시기 히틀러의 앞잡이였던 우크라이나 민족주의단체들 즉 반데라의 상징물들은 신나치스트들의 집회와 행렬행진이 있었다.

로씨야의 무상 인민문제담당 전권대표는 어느 한 연단에서 연설하면서 이것은 유림을 모욕하는 행위이며 나치즘으로부터 평화를 구원하달라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모독행위라고 격분

을 표시하였다.

부원대통령은 쓰르비아신문 《볼리베르》의 회견에서 오늘날 우리의 공동의 의무는 나치스트들과 그 공범자들을 영웅화하려는 시도에 대처하는것이라고 언명하면서 제 2차 세계대전의 령사를 의곡하려는 의의의 형태의 인종주의, 배타주의, 호전적인 민족주의를 반대하여 일관하게 투쟁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미국이 이러한 행위는 국제법과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호소문은 미국이 반공화국배설을 해체할것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자주권존중과 평등을 기초한 협조와 교류를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이 강화되고있다.

현시기 정의와 진리를 지향하고 부흥번영하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시대적과제로 내세우고 노력하고있는 나라들사이에는 경제문화적으로 서로 협조하고 교류할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이 많다.

나를사이에 서로 교류하고 협조한다면 세 세계의 요구에 맞는 민족경제건설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다.

주목되는것은 올해에 국가 및 정부수반들이 외국방문을 통하여 대외관계의 폭을 넓히고 국제적협조와 교류를 강화해나가고있는 것이다.

3월 3일 나이지리아대통령이 나미비아를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법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령해문》, 《관방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령해문》, 《지질, 채광, 광물개발 및 야금분야에 관한 령해문》 등 11건의 협조

미국의 반꾸바봉쇄책동 규탄

올어나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로씨야의무성 공식대변인 알렉세이 드 루카체비치가 23일 꾸바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를 반대하는 자기 나라의 립장을 천명하였다.

제재는 문제해결의 방도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는 미국의 반꾸바경제제재가 계속 실시되는것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자메이카공화국 21일 꾸바에 대한 미국의 봉쇄를 당장 끝

장본것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결의는 50여년간에 걸치는 미국의 반꾸바제재를 비난하고 꾸바를 《레조시원국》명단에서 제명할것을 미행정부에 요구하였다.

결의는 자메이카정부와 인민은 꾸바를 적극 지지성원한다고 강조하였다.

—가자스스탄인민공산당 중앙위원회가 22일 유엔총회에 보낸 서한에서 꾸바에 대한 미

국의 제재를 끝장본것을 요구하였다.

서한은 미국이 반세기이상이나 꾸바에 경제, 무역 및 금융봉쇄를 가하고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꾸바인민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들뜨우는 대방살륙만행으로 된다고 규탄하였다.

미국의 부당한 봉쇄책동은 모든 분야에서 꾸바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국제사회의 의사와 배치된다고 서한은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에서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쌍무관계를 발전시켜나가고있다.

지난 7월 마르코와 코르티에르가 농업연구분야에서 호상 협력해나갈데 대한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웹과 필리핀이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쌍무협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8월에는 인디아와 싱가포르가 국방분야에서 협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고 스리랑카와 세이셸이 두 나라사이의 경제협조수단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자연부원의 리용과 생태환경보호문제, 연안국들사이에 자주권과 영토안정, 평등을 보장하며 무역행사를 허용하지 말고 교섭해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할데 대한 문제들이 토의되었다. 회의결에 공동성명이 채택되었으며 일련의 협조문건들이 조인되었다.

많은 나라들은 이렇게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여러 분야

협조와 교류를 발전시키기 위한 움직임

교류를 발전시켜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단걸과 협조를 위한 노력은 최근에 진행될 국제회의들에서도 찾아볼수 있었다.

지난 5월 독립국가협동체 정부수반자사회 회의가 벨라루스의 민스크에서 진행되었다. 독립국가협동체 성원국 정부수반들과 대표들이 참가한 회의에서는 사회경제발전과 보건, 문화, 교육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의 협조 등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이 토의되었다. 회의결에 과학기술정보교류, 교통안전보장, 군사 등 분야에서 성원국들사이에 협조를 발전시킬데 관한 문건들이 조인되었다.

지난 7월 브라질에서 제 6차 브릭스수뇌자회의가 진행되었다. 《포괄적인 장성:지속적인 해결》의 주제로 진행된 회의에서 성원국들이 정치,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호상 협력을 강